



롯데케미칼, 대전 지역아동센터 쌀 600포 기부

롯데케미칼이 창립 47주년을 맞아 대전 지역아동센터에 쌀 10kg 600포를 지난 10일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된 쌀은 지역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 인근 농가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되었다. /롯데케미칼



현대백, '제주도 돌멩이와 갈치' 전시회 개최

현대백화점은 오는 6월 11일까지 경기도 남양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 3층에서 '제주도 돌멩이와 갈치' 전시회를 연다. 스페이스원 3층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모카(MOKA) 가든에서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비영리단체인 '제주도서관친구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의 지원으로 완성한 '세계자연유산마을, 그림책을 품다'란 그림책에 실린 작품을 소개한다. /현대백화점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스폰서십 체결

CJ대한통운이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2023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8년 연속 타이틀 스폰서십을 이어간다. CJ대한통운은 '2023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타이틀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6년 슈퍼레이스와 첫 인연을 맺은 이후 8년째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파견) 조오현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이우영 △산재보상정책과장 신호철

부음

- ▲오인환씨(전 연세대 대학원장·신문방송학과 교수) 별세, 공경자씨(인하대 명예교수) 배우자상, 오세관씨(재미치과의사) 부친상, 한수진씨(미국 국방외국어대 교수) 시부상=12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20분, 장지 광릉추모공원, ☎ 02-2227-7500
- ▲심재익씨(전 잠사회 회장) 별세, 준보(점보 대표이사)·소희(이화여대 교수)·은보·정원씨 부친상, 이영현(전 과학기술대 교수)·방기선(기획재정부 1차관)·전진홍씨(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장인상, 최지혜씨 시부상=11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4일, ☎ 02-2227-7500.
- ▲임호순씨 별세, 김연옥씨 남편상, 태창·태식·근식(보협매일 GA 미디어 국장)·윤서씨 부친상=11일, 경북 안동시 용상안동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안동 장사문화공원 ☎054-820-1494
- ▲이중우씨 별세, 동경씨(연합뉴스 동부·다문화부장) 부친상=11일,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3일 오전, ☎ 054-245-0444, 010-5188-7079

조육제 “유일한 박사 기업이념 바탕 미래비전 달성”

(유한양행 사장)

유한양행 故 유일한 박사 추모식

유한양행, 유한재단 등 500명 참석 유 박사 애국정신·기념이념 되새겨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기업이념을 되새겨 더욱 정진하겠다.”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영면 52주기를 맞았다. 유 박사는 지난 1971년 3월 11일 76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 유한학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에 위치한 유일한 기념홀(윌로우 하우스)에서 유일한 박사 제 52주기 추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추모식은 유족 및 조육제 사장을 비롯한 유한양행 임직원, 유한재단, 유한학원 재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유한양행 조육제 사장은 추모사



유한양행과 유한재단, 유한학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에 위치한 유일한 기념홀(윌로우 하우스)에서 유일한 박사 제 52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유한양행

를 통해 “유일한 박사님의 일생은 그 모든 것이 신의와 성실에 기초한 진취적인 기업가요, 선구적인 교육가요, 헌신적인 사회운동가, 애국애족의 독립운동가 이셨음을 되새기게 한다”며 “유한양행은 핵심가치인 프로그레시브와인테그리티를 바탕으로 찬란한 100년사 창조와 비전 달성을 위해 정진하고, 유한재단은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 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보다 큰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나가며, 유한학원도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과 유한재단·유한학원은 매년 유일한 박사의 기일에 추모 행사를 갖고, 이를 통해 창업 당시부터 계승해 온 유일한 박사의 애국에

족 정신과 숭고한 기업이념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있다.

유 박사는 한국 기업의 선구자로서 1926년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제약 회사 유한양행을 창립했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공익법인 유한재단을 설립하는 등 모범적인 기업활동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정신을 몸소 실천한 기업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일한 박사는 ‘기업은 사회의 것’이라는 일념으로 1936년 개인기업이던 유한양행을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종업원주주제를 채택했다.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주식상장을 통해 기업공개를 단행했고, 1969년에 이미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고 전문경영인체제를 정착시켰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현대차, ‘포 투모로우 프로젝트’ SXSW 최종후보 선정

사회 문제 해결 풀뿌리 플랫폼 파이널 리스트 기념 영상·사진 전시

현대자동차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한 ‘포 투모로우’ (for Tomorrow) 프로젝트가 ‘2023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 이노베이션 어워즈’ 미디어 부문 파이널 리스트(최종후보)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영화·음악·IT가 함께하는 세계 최대 규모 종합 예술 축제인 SXSW는 1787년 지역 음악 페스티벌로 시작해 스타트업 주도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이는 행사로 거듭났다. 올해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for Tomorrow'의 포스터

이달 10~19일 열린다. SXSW는 매년 행사 기간 중 미디어·지속가능

성·디자인·인공지능(AI) 등 14개 부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술을 개발한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포 투모로우’는 교통·주거·환경 등 오늘날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전세계 각계 구성원들이 집단 지성을 모아 세부적으로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풀뿌리(grassroots)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다. 현대차와 UNDP가 2020년 9월 업무 협약을 계기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현재 52개국에서 84개의 솔루션이 제안되는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대차는 파이널 리스트 선정을

기념해 프로젝트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11일(현지시간) 텍사스 JW메리어트 오스틴에서 전시했다. SXSW 이노베이션 어워즈 최종 수상작은 13일 전문 심사단 심사와 관객 투표를 통해 오스틴 컨벤션 센터에서 발표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와 UNDP 합작 프로젝트의 혁신성과 진정성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전세계의 풀뿌리 솔루션들이 서로 혁신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대·UNDP가 올해도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더 많은 글로벌 시민들이 전지구적 활동에 동참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이노 튀르키예 구호물품 1030점 기부

전 사업장 구성원 229명 참여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자발적인 구호물품 기증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전 사업장에서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구호물품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캠페인

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이뤄졌으며, 총 229명의 구성원들이 겨울용 의류와 담요, 침낭, 핫팩 등 1030여 점에 이르는 구호물품을 모아 기부했다. 구호물품은 이달 중 튀르키예 대사관을 통해 튀르키예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현지 보건 및 위생상태를 고려해 피부에 직접 닿는 의류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으로만 기부를 진행했다. 방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이 지난 3일 SK서린빌딩(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역에 전달할 구호물품을 포장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한용품 역시 중고제품이라도 상태를 꼼꼼히 검사해 기부를 받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스타필드 “플라워 페스티벌 놀러오세요”

쇼핑테마파크스타필드가 마스크 없이 향긋한 꽃내음을 맡을 수 있는 첫 번째 봄을 맞아 ‘플라워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먼저, 기념일을 위한 화려한 꽃다발 대신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꽃을 즐기고 싶다면 오는 23일까지 스타

필드 안성에서 열리는 ‘파머스 마켓’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스타필드는 꽃 정기구독 브랜드 ‘꾸까’와 함께 유려피안 감성의 재래식 꽃 시장을 마련했다.

스타필드 고양 1층 고메스트리트 앞에서는 15일까지 싱그러운 생화

가 가득한 ‘프레시 가든’ 플라워 마켓이 열린다. 화사한 봄꽃은 물론 공기정화식물과 다양한 화분이 준비되어 있어 꽃송이가 피어나는 활기찬 플랜테리어를 계획하고 있다면 제격이다.

스타필드 하남에서는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오감을 자극하는 환상적인 ‘핑크 파라다이스’가 펼쳐진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코웨이 “새싹 키우기 도전하세요”

코웨이가 ESG 활동 일환으로 고객과 함께 친환경 가치를 실천하는 ‘그린 그로잉(Green Growing)’ 새싹 키우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12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새싹 키우기 챌린지는 오는 4월5일 식목일과 4월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했다.

코웨이는 미니 케일 씨앗 등이 들어있는 친환경 새싹 키트를 증정해 녹색자원 보호 동참을 독려할 예정이다. 키트는 종이화분으로 구성돼 새싹이 자라 옮겨 심어야 할 때 화분째로 묻어도 흙 속에서 자연분해된다.

코웨이 그린 그로잉 챌린지는 이달 19일까지 코웨이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총 100명을 선정해 친환경 새싹 키트를 증정하며 뽑힌 참가자들은 새싹 키우기 활동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회를 올리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